

민주 대선경선 ‘시민참여형’ 컷오프로

시민여론조사 70%·당원 여론 30%

후보 6명 이상때 도입...5명으로 압축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단장 주미애 최고위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가 6명을 넘을 경우 컷오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대선경선준비기획단은 주자가 너

무 많을 경우 경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1차 예비경선으로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컷오프 실시를 결정했다.

컷오프 방식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70% 반영하고,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 여론을 30%(권리당원 15%, 비권리당원 15%)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컷오프에서 조직동원이

가능한 1만명의 국민선거인단과 2400명의 시민 대상 여론조사로 이뤄진 것과 비교해 시민 참여폭이 대폭 넓어진 것이다.

컷오프 통과 인원은 5명으로, 대선 출마 후보가 6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가 실시된다. 투표는 1인 1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지도부 선출을 위해 실시한 컷오프는 일반 시민이 아닌 중앙위원들에게만 1인 3표씩 투표권을 줬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경선에서 컷오프 방식을 바꾼 것은 최종 경선 방식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당원

과 일반 시민의 구분을 두지 않고 가급적 많은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현재 민주당에선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 조경태 의원 등 4명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대선경선준비기획단의 오영석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을 이번 경선의 기본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경선에서도 이 같은 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최소한 당의 정책과 노선에 부합하는 인물이 후보로 압축되고 경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으로 경선이 치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대선경선 5명 대결 구도로 가나

비박 중 김문수 참여 가능성...박근혜 금주중 출마 선언할듯

새누리당 비박 대선주자들이 경선 참여 문제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경선 구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예초 독주해온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서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이른바 비박 3인의 연대구도가 형성됐으나 이들이 요구해 온 완전국민경선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이후 대외에 굳이 열이 생긴 모양새다.

정 전 대표와 이 의원이 “경선 불변경 없이는 경선 참여가 어렵다”며 경선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2간 보조를 맞춰 온 김 지사가 경선 참여 유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김 지사 주변에선 6대 4 정도로 경선 참여에 무게가 쏠려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다만 말바꾸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선 경남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이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지사에 이어 김 의원까지 경선에 합류할 경우 이들이 일정부분 흥행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역시 완주할 것으로 보여 외견상 경선구도는 박근혜·김문수·임태희·김태호·안상수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금주중 대선출마를 선언한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지난달 22~23일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45.7%)과 차기 대권 적임자(38.7%) 항목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다.

그가 여의도에 출사표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투표으로 하는 경선캠프를 꾸리고, 경제민주화 등을 기치로 대권 재수에 나선 것으로써 12월 19일 대권고지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각축은 불붙을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준영 지사 ‘컷오프 통과’ 관심

인지도 불리함 속 통과팬 지사직 사퇴할듯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앞서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유일한 광주·전남지역 출신인 박준영 전남지사의 본선 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컷오프 결과에 따라 박 지사의 지사직 사퇴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조경태 의원 등 4명.

이달 초순에 김두관 경남지사와 김영환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며 정몽준 고문도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전 포인트는 누가 본선에 진출하느냐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손학규 후보가 상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명의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6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컷오프 통과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와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 여론조사 30%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일단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타 후보에 비해 전국적 인지도에서 다소 떨어지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컷오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박 지사에 대한 광주·전남 민심의 쏠림현상과 구 민주당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현실화된다면 컷오프 통과와 함께 이번의 주인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박 지사가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본선에서의 진급 승부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컷오프 틀은 박 지사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박 지사의 진정성과 비전이 먹혀든다면 컷오프에서 이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대 국회 열립니다

제19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새 국회기(旗)가 게양되고 있다. /연협뉴스

‘대한민국 정경문화대상’ 이용섭 의원 수상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1일 한국정경문화인협회·정경미디어그룹 등이 주최한 ‘2012 대한민국 정경문화대상’ 정치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형 마트 규제법안 발의·서민주거 안정 대책 마련 등 탁월한 경제적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4년 연속 국감 우수 의원으로 평가받는 등 대한민국



정치선진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의원은 “앞으로도 ‘깨끗한 정치,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각국회 오늘 개원

여야,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조속처리

국회가 2일 개원한다. 법정개원일보다 27일 늦은 지각개원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19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2일 국회를 개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각 당 15명씩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오전 첫 본회의를 열어 전날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에는 개원식을 갖는다. 19대 전반기 2

년간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각각 선출된 상태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내국통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내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두관 지사

8일께 땅끝서

대선 출마 선언

김두관 경남지사가 오는 8일께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최후단 도라산 전망대까지 종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29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김 지사는 다음달 8일 땅끝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다음날 신안~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세종시~도라산 전망대에 이르는 코스를 소화하며 각 장소에 적합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코스는 구상 단계여서 바뀔 수 있고, 출마선언 장소도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측근들은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내 반대여론을 정면 돌파, 지사직 사퇴란 강수를 두며 대선에 올린하기로 하고 10일여간 남은 도지사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의원도 다음달 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하며 쌓은 신기술과 신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들 대선주자와 차별화되는 창조적인 비전과 정책을 통해 다시 서는 대한민국의 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제주도 현지 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등록번호 : 616-81-682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을 쳐보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가족끼리, 친목, 산악회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제주여행 다시찾을 수 있는 제주무궁화 관광이 됩니다~

목포출발 『목포투어』 119,000원	목포출발 『목포투어』 119,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83,000원 [주중+주중] 196,000원 [주중+주말] ★유료항공료불포함★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 일요일 16:30출발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입장료, 주차료	▶1일째: 목동남해고속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입장료, 주차료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 일요일 16:30출발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입장료, 주차료

1박2일크루즈투어 85,000 (한라산 등반or1일 제주관광) | 3박4일크루즈투어 155,000 (한라산 등반+2일 제주관광) | 2박3일크루즈+항공투어 153,000(주중) / 173,000(주말) ★유료항공료 불포함★

제주도 패키지 2회 이용시 2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증정or 여행금액 할인 (택, 2인이상 예약시 1인에 한함)

항공/배편/호텔/펜션/렌트카 예약 | 입금계좌안내: 신한 100-024-625912 예금주: (주)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 협찬: 남해고속씨월드체리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유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분
- ▶4명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 ▶입찰활동비 / 교재비 등 별도 회비없음
-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 ▶공통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